

4주차

일본군 ‘위안부’ - 침묵을 강요당한 피해자 (1940년대)

김 지 민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등장

- '위안부' 용어 문제
- '위안소' 설치의 논리
- '위안부' 제도의 특수성

02. 여성들의 동원 과정

- 강제 동원의 근간이 마련되다
- 끌려간 여성들

03. 그녀들의 이야기

- 피해자들의 증언
- 공통된 피해

04. '위안소' 운영과 생활

- '위안소' 운영
-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 인권 유린의 범죄

05. 전쟁 후에도 끝나지 않은 피해

- 생존과 귀환
- 후유증

3차시

그녀들의 이야기

학습목차

학습목표

-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전쟁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서로 다른 지역과 환경에서 다양한 피해자들이 겪은 공통된 경험을 이해하고, ‘위안부’ 범죄의 본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피해자들의 증언
- 공통된 피해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자 증언의 중요성

- '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
- 피해자들의 직접 경험을 보여준다
- 일본 당국은 자신들의 가해 사실을 자세한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이번 차시에는...

-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버렸는지
-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자

황금주



1992년 UN인권소위원회에서 증언하는 황금주(한국, 1922-2013)

“ 어느 날 공장에 갈 직공을 모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당시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공장에 일하러 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어린 시골 처녀들이었습니다.
저도 공장에 돈 벌러 간다고 생각하니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저는 깨끗한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갔습니다.
이때가 싱가포르가 함락되던 1942년 4월이었습니다.
함흥역까지는 조선인이 인솔했어요.
많은 여자들이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는 군용열차였고,
입구에는 헌병들이 지키고 있더군요. 게다가 밖을 내다볼 수 없도록
기차 창문은 모두 검정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실은 트럭은 캄캄한 밤중이 돼서야 어느 육군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그곳이 '히노마루' 부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들어간 곳은 양옥 안의 조그마한 방이었는데,
안에는 좁게 칸막이를 해놨고, 모포 몇 장이 놓인 나무침대가 있었습니다.
헌병이 눈을 부라리고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용변을 보러 갈 때마다 하늘을 보면서
'엄마도 이 하늘을 보고 계시겠지' 생각하고 눈물만 자꾸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에도 "도망칠 생각하는 거야!"라는 고함이 어김없이 들렸고,
심한 기합(얼차려)을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착한 날은 불안과 피로 속에서 그냥 지나갔지만 다음날부터 우리는
군인들을 상대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순결을 잃게 되면
죽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겁에 질려 있었으므로
처음 들어선 병사한테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은 대검으로 제 속옷을 찢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20여 명 정도의 군인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

황금주 증언, 박도 역음,
『일제강점기』, 눈빛출판사 (2010), 630~634쪽

마리아 로사 헨슨

Maria Rosa Henson (필리핀, 1927-1997)

- 필리핀에서 최초로 공개 증언을 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에 의한 납치 유괴 피해 사례

“

1943년 4월 어느 날 마리아는 다른 게릴라 대원과 함께 보급품을 숨긴 수레를 끌고 일본군 검문소를 지나게 되었다. 수레를 수색한 일본군 초병은 마리아 일행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잠시 후 일행을 다시 불러 세워 마리아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보냈다. 그들은 마리아를 일본군이 거주하는 막사로 데리고 갔다. 그 막사는 과거 마을의 병원으로 사용되던 건물이었다. 그들은 마리아를 건물 2층으로 데려가 문도 없이 커튼으로 가려진 작은 방에 넣었다. 방 안에는 작은 대나무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일본군 막사에는 마리아와 같은 처지의 여섯 명의 다른 여성들이 있었다.

그날부터 오후 2시경부터 저녁 10시경까지 줄지어 들어오는 일본군 병사들의 '위안부' 생활이 시작되었다. 12명씩 짝을 지어 오는 병사들을 상대하고 나면 30분씩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1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병사들이 자신의 성욕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상대 여자에게 폭력으로 화풀이를 했다. 그렇게 매일 마리아는 20~30명의 일본군 병사를 상대해야 했다. 병사들이 오지 않는 오전에는 칸막이도 없는 막사 한쪽 물가에서 병사들이 훑쳐보는 가운데 몸을 씻고 빨래를 해야 했다.”

“

마리아 로사 헨슨 증언
『Comfort Woman: Slave of Destiny』



수용소에 가기 얼마 전 자바의 사진관에서
(1942년)

얀 루프 오헤른

Jan Ruff O'herne (네덜란드, 1923-2019)

“

나는 1923년 네덜란드령 동인도 (현 인도네시아)의 자바에서 네덜란드인 가족의 4세대로 태어났다... 내가 19살이 되던 1942년 일본군이 자바 지역을 점령하면서 수천명의 네덜란드인 여성과 아이들은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1944년 어느 날 일본군 고위관리가 수용소에 찾아와 17세 이상의 미혼 여성들을 소집했고, 그 중 열명을 뽑아서 데려갔다. 나도 그 중 하나였다...

우리를 태운 트럭이 스마랑 지역의 커다란 네덜란드 식민지 스타일의 집 앞에 섰다... 일본군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일본군의 성적 유희를 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어린 소녀들이어서 순진했고 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우리들은 식당으로 소집되었고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곧이어 들어온 일본군 병사들이 우리를 한 명씩 끌어냈다.
방마다 소녀들의 비명이 들렸다. 나 역시 방에 끌려가서 식탁 아래 숨었지만 곧 들켰다.
나를 끌어내려는 일본군에 저항하여 온 힘을 다해서 발길질을 하자 군인이 몹시 화를 내며
칼로 위협했다. 나는 도망갈 곳을 잃고 사냥 당하는 동물처럼 구석으로 피했지만,
그는 쥐를 잡는 고양이처럼 나를 쫓아다녔다. 결국 나는 강간당했고, 그가 방을 떠나고 나서
온 몸이 덜덜 떨리는 채 남겨졌다...
그러나 그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른 군인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일은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그것을 시작에 불과했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도록 이런 일은 반복되었다. 그곳은 완전한
감시와 통제 아래 있었고, 여성들이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

오헤른 증언,
자서전 『나는 일본군 성노예였다』
(삼천리, 2018)에서 발췌, 편집

공통된 피해



‘위안소’ 앞에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일본 군인들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서 '위안부' 피해의 공통점

- 자기 의지에 반하여 여성들이 동원 혹은 **강제로 끌려감**
- '위안소' 혹은 군부대에 감금 혹은 인신구속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
- 대부분 의무관에게 검진 받고 일본 이름이 붙여진 방에 배정
- 업주에게서 표를 산 일본 군인들이 방 앞에서 기다림
- 반복적인 강간

이번 차시에서는

- 피해자들이 직접 들려주는 동원과 '위안소' 생활
- 다양한 지역과 동원 방법, **공통적인 성노예 생활**

다음 차시에서는

- '위안소'의 실상과 피해자들의 생활

SOURCES

[출처01]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https://womenandwarmuseum.net>)

[출처02] Australian War Memorial (<https://www.awm.gov.au>)

[출처03] 아카이브814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디지털 아카이브 (<https://archive814.or.kr>)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